

추석가정에배순서

예배로부름	시편 65:10-13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찬송	다같이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히박국 3:17-19	말은이
말씀나눔	『온전한 감사』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송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온전한 감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신앙과 건강, 경제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라의 멸망과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히박국의 온전한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온전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첫째, 여호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히박국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침략과 멸망의 공포 속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박국은 오직 여호와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합24)처럼 온전한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환란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환란이 엄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화산처럼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은 환란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온전한 감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으로 감사하며, 환란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온전한 감사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수련회

중보기도팀은 9월 6일 ~7일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약 70여명의 팀원들이 참여하여 수련회를 가졌다. 첫 날 진행된 배현성 목사의 강의를 중보기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중보 요청된 기도 내용에 대해 함구함으로서 요청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기도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선입견과 판단을 버리고 온전히 중보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진 말씀과 기도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헌신을 다짐하였다. 둘째 날은 침묵 기도에 대한 강의로 시작하여 이어진 아침 식사에도 침묵을 지켰다. 침묵 식사는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게 되어 대화를 나누며 먹는 식사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식사 후에는 각자가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자연을 돌아보며 침묵 중에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팀 별로 자신의 침묵기도 경험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예배는 요한복음 21장15-23절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영적인 재충전과 은혜의 시간을 마무리 했다. 이번 수련회는 1박 2일로 진행된 관계로 어린 자녀를 둔 중보기도자들의 참석이 어려워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참여자들에게는 기도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다. <김주현 기자>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長老(장로). 執事(집사). 勸士(권사)

恒存職(항존직) 선거에서 선한 청지기가 被擇(피택)되기를 기도하면서 직분의 의미를 새겨보자.

奉仕(봉사)의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長(긴 장. 어른 장): 가지런한 머리카락 乡(터럭 삼)과 衣(옷 의)가 합하여 (가지런한 머리카락을 옷 위로 길게 늘인자가 어른이다)라는 뜻이 되었다.

★老(늙은이 로): 土(흙 토, 땅 토)와 동작 丿(삐칠 별)과 등 굽은 사람 匕(늙은사람 인)이합하여 (땅에 지팡이를 짚는 등 굽은 사람이 늙은이다) 라는 뜻이 되었다.

★執(잡을 집): 幸(다행 행)과 丸(알 환. 둥글 환)이 합하여 (다행히 알처럼 둥근 것을 잡는다) 라는 뜻이 되었다.

★事(일 사): 많음의 亼(열 십)과 사람의 口(입 구)와 손의又(크:또 우)가 합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손으로 일한다) 라는 뜻이 되었다.

★勸(권할 권): 吉鳥(길조)인 勹(황새 관)과 力(힘 력)이 합하여 (吉鳥인 황새처럼 좋은일을 하자고 힘써 권한다) 라는 뜻이 되었다.

★士(선비 사): 많고 완전함의 亼(열 십)과 모으다의 一(한 일)이 합하여 (많고 완전한 지식을 모으는 자가 선비다) 라는 뜻이 되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_ 갈 6:8

통 권 _ 제 308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9월 23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이미 항존직 후보자 추천 1, 2차 투표 마쳐

2013년부터 일하게 될 ‘항존직’을 뽑는 큰 일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2일, 주님의교회 지하 1층 큐브에는 현재 항존직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444명에 의한 1차 후보 투표가 진행되었고, 9월 9일에는 당회원에 의한 2차 추천 투표가 진행되었다.

‘항존직’이란, 말 그대로 ‘계속 있는 직분’이라는 뜻이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교회마다 조직과 직분, 명칭이 다를

이상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 된다. 특히 장로 후보는 40-65세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재적기간 10년 이상인 성도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30-70세의 여성으로 복음에 따라 모범이 되어야 하고, 안수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30-70세의 남성으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후 3:8-9)의 말씀에 합당하여야 한다.

다른 많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주님의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위의 자격에 합당한 후보를 추천하고, 모든 세례교인의 투표로 선출해오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보다 많은 성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역을 통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존 항존직까지 추천의 범위를 넓혔다. 하여 400여 명에 이르는 항존직의 1차 투표로 후보의 3배수를 선출하고, 당회에서 다시 2차 투표로 2배수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올해에 이르고 있다.

최종 피택자 선출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9월 9일 당회에서 최종 추천된 후보자들에게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우편물이 발송되었다. 후보자 본인이 항존직 후보자임을 수락하여야 이후 후보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항존직 피택 대상자들을 후보로하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항존직 선거는 10월 7일에 진행된다. 피택인원이 1차 투표에서 미달한 경우 미달인원의 1.5배수를 대상으로 10월 14일에 2차 투표가 진행된다. 2012년의 최종 항존직 피택자는 10월 17일 수요일에 후에 발표되고, 10월 21일 주보와 <함글함글>, 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된다. 항존직 피택자는 교회 내부의 수련 과정을 거쳐 2013년에 안수를 받고 직분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2012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작업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다. 3월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의 첫 모임에서 2012년 선거관리 세칙과 일정,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5월 13일에 당회의결을 거쳐세칙과 일정, 선관위원이 확정되었으며, 8월 4일 항존직 후보 추천용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었다. 담당 교역자인 박혜성 목사 외에 장로 4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20명 등이 선거관리와 실무위원으로 선정되어 10월의 최종 선정일까지 30여회에 이르는 회의와 절차를 감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선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박대길 장로는, “따라서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또한 선거과정 중간에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다. 항존직 피택 대상자들은 후보추천일인 9월 2일 이후 선거 마감일까지 모든 선거 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거나, 후보자가 제출한 소정 양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 교인으로 은혜롭지 않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회의 협의를 거쳐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은 분명 ‘좁은 길’임에 틀림없겠다. <편집부>

‘익명적 헌신’ 각오 다질 주님의 일꾼을 뽑는다

_ 2012년 항존직 선거에 대한 모든 것

지난 8월 말, 주님의교회 1층 통로에는 항존직 후보자 추천 대상자 명부와 선거인 명부가 게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9월 2일과 9일에 걸쳐 항존직 후보자 추천이 진행되었다. 2013년부터 ‘익명적 헌신’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뽑는 행사이다. 도대체 ‘항존직’이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일까? 이런 저런 궁금증을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통해 알아보았다. _ 편집자

수 있다. 주님의교회에서 매년 시행되는 선거의 대상이 되는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다. 올해 항존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대길 장로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 들일 것”을 강조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귀한 종들을 뽑는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종이므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이 ‘항존직’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까?

기본적으로,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을 잘 지키면서, 최근 2년 이상 교회 사역 활동과 거자씨 모임에 참여하고, 12단계 성경공부 과정 가운데 3개 단계

주간 목회력

<2012년도 항존직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 1층 복도와 홈페이지

<사역박람회 1인 1사역 갖기 운동>

봉사(9.23)/미디어, 젊은부부, 양육, 청년(10.7)

<12단계 성경공부 집중강좌 개강>

- 기간: 2012년 10월~2013년 6월까지

- 수요일: 10.10(수) 오전9:30 / 중예배실

- 토요일: 10.6(토) 오전9:00 / 제1집회실

<2012 하반기 성인 입교 및 세례예식>

- 9.23(주일) 오후 1:30 / 초등부실

<교육목회원 가을학기 교사대학>

- 9.23(주일) 오후 3:30 / 소예배실

2012년 항존직 선거안내

1. 선거일

1차: 10월 7일(주일) / 2차: 10월 14일(주일)

2. 피택 대상인원

장로: 10명 / 권사: 20명 / 안수집사: 20명

3. 피택후보자의 자격

- 1) 장로 후보자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무흠 세례(입교)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주님의교회 등록 후 10년 이상 된 자.
- 2) 권사 후보자는 무흠 세례(입교)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자로서 주님의교회 등록 후 5년 이상 된 자.
- 3) 안수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으며 무흠 세례(입교)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주님의교회 등록 후 5년 이상 된 자.
- 4) 주님의교회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 5) 피택 후보자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을 잘 지키는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① 최근 2년 이상 교회지역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
 - ③ 12단계 성경공부 과정 중 3개 단계 이상 수료한 자.

4. 후보자 추천방법

- 1) 후보자의 추천 자격은 주님의교회 1년이상 재임한 부목사,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은퇴 / 사임장로, 은퇴권사, 은퇴안수집사에게 부여한다.
- 2) 후보자 추천은 9월 첫째 주일에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항존직별 피택 예정인원의 1/2(장로 5인, 권사 10인, 안수집사 10인)을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3) 선관위는 1)에 의한 추천자를 취합, 피택 예정인원의 3배수를 득표순으로 작성, 9월 둘째 주일에 개최되는 정기당회에 제출한다.

4) 선관위가 정기당회에 제출한 명단은 당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피택 예정인원의 2배수로 조정한다.

5) 선관위는 당회에서 조정한 명단을 득표순에 따라 작성, 공동의회에 공표할 피택 예정 인원의 2배수 명단을 확정한다.

6)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후보자 인적사항(별첨 양식)을 작성, 10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한다

5. 투표참여 자격

항존직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정한다.

6. 선거일정

- 1) 10월 첫째 주일(7일)에 공동의회를 개최, 제1차 투표를 실시한다.
- 2) 제1차 투표에서 피택인원이 미달할 경우, 10월 둘째 주일(14일)에 제2차 투표 실시 (단, 후보자수는 제1차 투표의 득표순에 따라 대상인원의 1.5배수로 한다.)

7. 피택요건

장로 피택요건은 총투표수의 2/3이상으로 한다.
권사와 안수집사의 피택요건은 총투표수의 1/2이상으로 한다.

8. 검표 및 개표

검표와 개표는 선거 당일 선관위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백지투표나 무효표는 투표인수에는 계상되나 득표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9. 선거결과 공표

투표결과는 투표를 실시한 주의 수요일예배 후에 발표하며 주보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2차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는 투표를 실시한

주의 수요일예배 후에 발표하며 주보를 통하여 공지한다.
피택자의 최종 명단은 10월 셋째 주일에 주보, 함침함 등 유인물과 주님의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10. 기타사항

(제1항) 항존직 피택 대상자 추천일 이후 선거 마감일 까지 모든 선거운동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선관위에 신고된 경우 당회의 협의를 거쳐 경고 혹은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1)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후보자가 제출한 소정양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 3) 교인으로서 은혜롭지 않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참고사항>

주님의교회 항존직 선출은 은혜롭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회 내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고, 항존직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시무장로를 위원장으로 하여 약간 명의의 시무장로와 부목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원의 실무위원(2012년도에는 신임권사와 안수집사)을 위촉한다. 당해 연도의 피택대상(장로, 권사, 안수집사) 및 인원수는 목회방침에 따라 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당회에서 결정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_에베소서 3:7

주님의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소중한 손길로 그 일꾼을 세워 주십시오.
선거는 성도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 2012년 선거관리위원회 >



>>개강

수요반 _
2012. 10. 10(수) am 9:30 / 중예배실 (지하1층)

토요반 _ * 토요반은 청년 중심입니다.
2012. 10. 6(토) am 9:00 / 제1집회실 (5층)

>>신청방법

기간 _ 2012. 9. 23(주일) ~ 10. 7(주일) 까지 / 교회 1층 로비 안내데스크
문의 _ 김정형 목사 ☎ 010-2998-0020 / 임익수 안수집사 ☎ 010-3758-6162



2012 킹덤 비전 영어캠프

저희 영어사역팀은 올해 킹덤비전캠프가 성공리에 끝난 것을 기쁨으로 전해드립니다. 봉사자들의 성실하신 수고와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캠프의 목적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를 선생님들, 다른 아이들과 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오신 풋스텝 선교회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그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번 캠프가 재미 있으면서도 사랑과 배움에 가득찰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든 아홉명의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평가에 의하면 올해가 이제껏 가장 결실있는 캠프였다고 하십니다. 방학 스케줄의 어려움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도,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도, 또한 우정도 해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영어캠프의 미션은 매주 수요일 7:30분 수요일 어린이 영어예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어사역팀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뮤엘 웨딩튼 목사>



Kingdom Vision Camp 2012 _ by Rev. Samuel Weddington

The English Ministry of the church is overjoyed to report that this year's Kingdom Vision English Camp was a success. Thanks to the hard work and diligence of the volunteers, and the overflowing support of the parents, we were able to accomplish our mission. Our goal was to help the children of the camp grow in their knowledge and love of God, and learn English while doing it. While the kids developed their English skill, most importantly, they were able to reach new heights in their faith and share that with the teachers and one another. Of course, we couldn't have done it this year with the help of Footsteps Ministries from the United States. Their wonderful teachers and sense of mission helped to fill the camp with fun, love and learning.

This year, 89 students joined the camp. From the feedback we got from the majority of parents, this year's camp was the most fruitful so far. While we know that some children were not able to join us this year because of scheduling difficulties, we hope they will return next year. Every year is different, with new things to learn, new avenues of faith to explore, and new friendships.

It is our hope you will join us as we continue the mission of the English Camp on Wednesday nights at 7:30pm during our Wednesday Night Children's English Worship held in Sarang Namu. In the end, everything we do as the English Ministry we hope to complete to the glory of God.

_ God's blessings, Rev. Samuel Weddington

미자립교회 청소년 초청 여름신앙캠프의 시간은 “가뭄”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에서는 올해 네번째로 2012년 ‘미자립교회 청소년 초청 여름신앙캠프’를 지난 7월 26(목) - 28(토)까지 주님의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주제 “Action2012 너는 가능성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6:12) 말씀으로 시작된 캠프에는 전국 12교회에서 11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선착순으로 미리 마감할 수 밖에 없어서 미안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참여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 조별모임과 새벽큐티, 심리검사를 통한 자신의 미래비전 발견과 롯데월드에서의 즐거운시간등 다양한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은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확인하며 자라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교회 봉사자 집사님들이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간식과 식사를 차려주셔서 음식을 만나는 시간도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교회가 이렇게 청소년수련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전국에 숨겨져 자라나고 있는 보석같은 청소년들을 k만날 기회를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 가족들은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박혜성 목사>

새벽기도 헌신자 수련회

9월8일 새벽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새벽헌신자 수련회가 열렸다. 80여명의 헌신자가 참여하여 강남연동교회 홍정근 담임목사가 전해준 주기도문 특강을 들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새벽은 은총의 시간이고 헌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로 부름 받고 하나님나라에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로 함께 헌신하는 함줄함울 공동체라 하며 새벽에만 공동체가 아니라 종일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라 하였다.” 강의를 들을 후 새벽헌신자 나눔의 시간에서는 최정숙 권사와 신광이 안수집사의 귀한 간증을 듣고 코이노이아 기도 시간을 가졌다.

10월부터는 셋째 주(20일) 새벽 기도 후 새벽기도 헌신자들이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가진다 하며 많은 헌신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한다. <신형섭 기자>